

 신한금융지주

혁신성장 팔 걷은 금융지주사들

 KB금융지주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해외진출 교두보

‘신한 혁신금융 추진위’ 주요 과제 그룹 네트워크 활용, 투자정보 제공 애로사항 제안하는 ‘신문고’ 구축

국내 금융그룹이 혁신성장을 위해 팔을 걷었다. 창업 관련 각종 정보는 물론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지원플랫폼이 곧 구축될 예정이다. 또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와 협약도 맺었다.

◆신한금융, ‘혁신성장 플랫폼’ 9월 론칭

신한금융그룹은 오는 9월 중 이성용 미래전략연구소 대표 주도로 개발 중인 ‘혁신성장 플랫폼’을 선보인다. 창업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제공 서비스와 대상 고객, 혁신산업의 범위를 확장한 사용자 친화적인 원스톱(One-Stop)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플랫폼은 크게 ▲정보제공 ▲투자지원 ▲컨설팅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정보로는 각종 창업 관련은 물론 기업의 해외진출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다. 투자지원으로는 신한 퓨처스랩과 신한 두드림스페이스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신한금융그룹의 대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 기업들에게 다양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

컨설팅 부분에서는 비즈(BIZ) 모델의 구체화를 돕는 창업 인큐베이션 역할과 동시에 규제개선·금융 애로사항을 제안하는 ‘신문고’를 만들 계획이다.

혁신성장 플랫폼은 지난 4월 출범한 ‘신한 혁신금융 추진위원회’의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다. 혁신위는 14개 그룹사, 2000여명이 참여하는 금융권 최대 규모며, 창업·벤처·기술형 우수기업 여신지원 등 혁신성장 기업에 6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은 매월 전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그룹경영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의 핵심 분야별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을 독려해왔다.

조 회장은 “리딩금융그룹은 단순히 실적 면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의 수준을 높이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신한은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KB금융그룹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인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와 손을 잡았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페이팔, 드롭박스 등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다.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30개국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300여개 대기업 및 1100여개 스타트업과의 제휴를 진행하고 있다. 특



지난 4월 미국 실리콘밸리 ‘플러그 앤 플레이’ 본사에서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왼쪽)과 ‘플러그 앤 플레이’ 사이드 아미디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KB금융

히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투자를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은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이 지난 4월 미국 실리콘밸리 출장 중에 플러그 앤 플레이 본사를 방문해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와 의견을 공유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협약으로 KB금융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파트너(Anchor Member) 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사와 맞손 핵심 리스트 공유받고 투자 참여 벤처캐피탈사와 투자유치도 기대

격으로 주요 업종별 핵심 스타트업 리스트를 공유받고, 업체 선정 및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플러그 앤 플레이의 실리콘밸리 육성프로그램(Accelerating Program)에 KB금융이 육성하는 스타트업인 KB스타터스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스타트업이 육성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과의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제휴 추진이 가능하고, 주요 벤처캐피탈사와의 투자 미팅을 통한 투자유치도 기대할 수 있다.

KB금융 윤종규 회장은 “KB금융은 이번 제휴를 발판으로 KB스타터스가 글로벌 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NH농협銀 ‘올백플랜’, 은퇴설계금융 1위 “테스트비용 지원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은행권 최초 비대면 채널 도입

NH농협은행은 은퇴설계 브랜드 올백플랜(All100플랜)이 ‘한국산업의 브랜드추천 은퇴설계금융서비스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산업의 브랜드추천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최하는 브랜드 평가조사다. 100개 산업군 브랜드에 대해 10~50대 남녀 1만2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올백플랜은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100% 맞춤설계를 의미하는 농협은행의 은퇴설계 대표 브랜드다. 통장과 적금, 카드, 대출 등의 전용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채널(올원뱅크,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의 은퇴설계시스템 내에 상담예약 프로그램을 도입한 ‘은퇴설계 자가진



NH농협은행 김인태 부행장(왼쪽)과 한수희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부사장이 지난 30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한국산업의 브랜드추천 1위 인증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단’서비스를 내놔으며, 은퇴설계 준비현황을 손쉽게 진단해보고 영업점 방문 및 상담까지 예약할 수 있게 했다.

김인태 마케팅부문 부행장은 “은퇴설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자가진단 등의 서비스를 내놓았다”며 “고객의 100세 시대를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금융위, 연 4회서 상시접수로 전환 핀테크 부담 덜고, 적시지원 도움

정부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 비용을 상시로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시기에 테스트 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테스트 수행을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핀테크기업 테스트 비용 지원을 연간 4회에서 상시 접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과 규모,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핀테크 기업의 신청부담을 덜어주고, 적시지원을 하기 위해 접수,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해야 하던 비용지원 신청을 3차 지원부터 상시접수로 전환한다. 핀테크 기업은 신청 기간의 제약 없이 지



정부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 비용을 상시로 지원한다.

/한국핀테크센터 홈페이지

원 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비용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단,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동일 회계연도 내 손해이력 있다면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규모는 총 40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뤄지며, 개별기업은 1억 원 한도에서 테스트비용의 75%까지 지원한다.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 설비 등 직접 비용이 테스트 비용에 포함된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매월 2주차까지 상시접수된 건을 평가 선정해 월말에 지원한다. 예컨대 8월 16일 이전에 접수한 기업은 8월 중 기업선정·비용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샌드박스의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에 집중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이 필요한 지정대리인은 계약 체결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테스트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BNK경남은행 “영업점서 양파 받아가세요”

방문 고객에 양파 1망 선착순 제공

BNK경남은행이 오는 8월 1일 ‘오늘은 양파DAY’를 실시한다.

BNK경남은행은 31일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오늘은 양파DAY’를 열고 전국 161곳 영업점을 선착순으로 방문한 고객들에게 양파 1망(5kg)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밝혔다.

앞서 BNK경남은행은 지난 24일 2000만원을 들여 창녕군이 추천한 양파 농가의 양파 5000망(1망 5kg, 25톤)을



/BNK경남은행

수매했다.

김두용 사회공헌팀장은 “오늘은 양파DAY 같이 양파 소비를 촉진하는 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삼성화재, 車보험 ‘애니핏 걸음수 할인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독창성·편의성 등서 우수 평가

삼성화재는 지난 3일 출시한 자동차보험 ‘애니핏 걸음수를 활용한 할인특약’이 순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 최초로 걸음수를 보험료 결정요소로 사용한 독창성과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인증과정이 필요 없는 편의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애니핏 걸음수를 활용한 할인특약은

삼성화재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에 가입된 고객이 직전 13주 이내에 50일 이상(토, 일 제외) 하루 걸음수 6000보를 달성하면 자동차보험료의 3%를 할인해준다.

단 개인용자동차보험 고객만 가입할 수 있으며 운전자 범위는 본인 1인 또는 부부 한정으로 설정돼 있어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이라면 건강증진서비스 애니핏을 통해 걸음수 목표 달성에 따른 보험료 할인뿐만 아니라 적립된 포인트

로 보험료 결제도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새로운 상품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화재 건강증진형 서비스 애니핏은 만 15세 이상 삼성화재 건강보험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애니핏은 매일 또는 매월 정해진 운동목표 달성 시 월간 최대 4500포인트, 연간 최대 54000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또 출석체크, 건강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추가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김희주 기자 hj89@